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미디어 업종 주간 동향

22.11.14(월)–22.11.18(금)

미디어/통신 Analyst 김회재 hoijae.kim@daishin.com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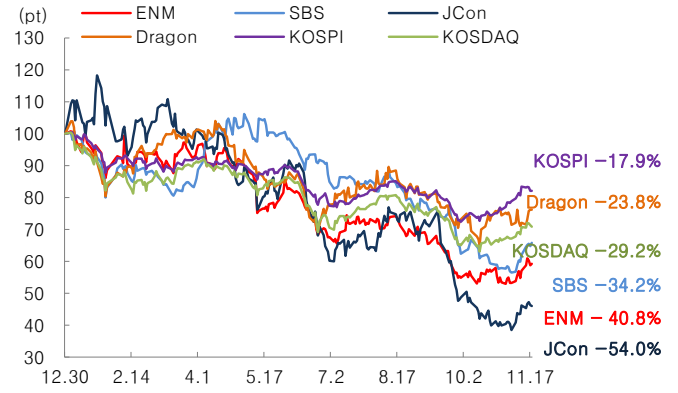
구분	기업	21/12/30	11/11	11/18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주간 그래프
컨텐츠	콘텐트리중앙 (036420)	54,600	25,200	25,100	▼ 29,500	▼ 54.0%	▼ 100	▼ 0.4%	
	스튜디오드래곤 (253450)	91,000	65,600	69,300	▼ 21,700	▼ 23.8%	▲ 3,700	▲ 5.6%	
	SBS (034120)	49,350	30,600	32,450	▼ 16,900	▼ 34.2%	▲ 1,850	▲ 6.0%	
	CJ ENM (035760)	138,800	79,200	82,200	▼ 56,600	▼ 40.8%	▲ 3,000	▲ 3.8%	
광고	제일기획 (030000)	22,850	23,600	24,300	▲ 1,450	▲ 6.3%	▲ 700	▲ 3.0%	
	이노션 (214320)	55,400	42,150	42,550	▼ 12,850	▼ 23.2%	▲ 400	▲ 0.9%	
유료방송	스카이라이프 (053210)	9,140	8,220	8,220	▼ 920	▼ 10.1%			
	LG헬로비전 (037560)	5,560	4,950	5,160	▼ 400	▼ 7.2%	▲ 210	▲ 4.2%	
영화	CJ CGV (079160)	25,050	15,700	16,400	▼ 8,650	▼ 34.5%	▲ 700	▲ 4.5%	
	콘텐트리중앙 (036420)	54,600	25,200	25,100	▼ 29,500	▼ 54.0%	▼ 100	▼ 0.4%	
지수	KOSPI	2,977.7	2,483.2	2,444.5	▼ 533.2	▼ 17.9%	▼ 38.7	▼ 1.6%	
	KOSDAQ	1,034.0	731.2	731.9	▼ 302.1	▼ 29.2%	▲ 0.7	▲ 0.1%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22년의 기대작들이 쏟아진다.**
- 22년 남은 한달 반 동안 TV, OTT 및 극장에서 올해 최대 기대작들이 쏟아져 나올 예정
- 콘중의 〈재벌집 막내아들〉과 〈카지노〉, 드래곤의 〈아일랜드〉, 〈더 글로리〉, 〈환혼2〉, 〈The Big Door Prize〉 등 올해 최대 기대작들 방영 예정
- 영화는 〈블랙펜서: 와칸다 포에버〉를 시작으로 대작의 개봉이 시작되었고, 〈아바타2〉, 〈영웅〉 등도 12월에 개봉 예정
-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콘중은 지난 2주간 20% 급등, 드래곤은 이번 주 +5.6% 상승. CGV도 3Q 연결 흑자와 연말 대작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4.5% 상승
- 제일기획도 상승 흐름. 3Q 실적도 좋았고 4Q 전통적인 성수기 진입 및 다음주부터 월드컵 특수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
- 미디어 업종은 올해 넷플릭스 영향으로 밸류에이션 하락이 컸지만, 원인이 되었던 넷플릭스는 5개월만에 저점 대비 +80% 상승한 $300을 달성했고, 컨텐츠, 영화, 광고 모두 연말 주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확대할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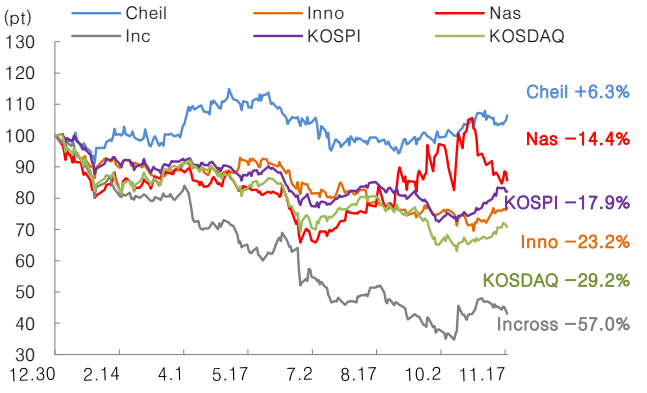
2. 주가 차트

그림 1 컨텐츠. 연간 최대 기대작이 몰리는 4Q. 밸류에이션 회복 근거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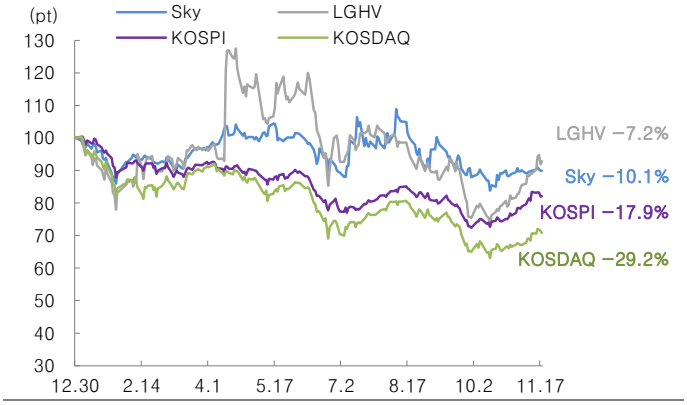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광고. 4Q 성수기 진입, 월드컵 효과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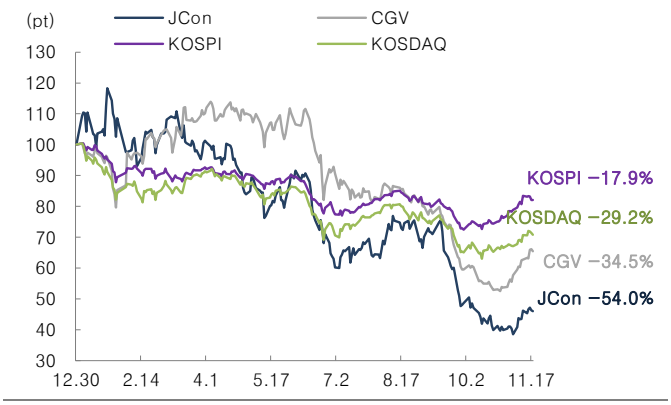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유료방송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영화. 3Q 흑자폭 확대. 12월 짧은 성수기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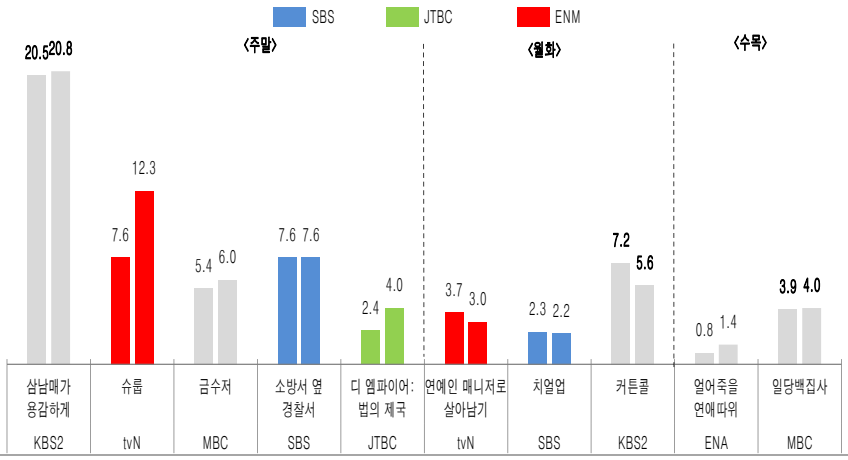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 주간 시청률

구분	작품명	방송사	주간	누적
주말	삼남매가 용감하게	KBS2	▼ 1.4	▲ 0.3
	슈룹	tvN	▲ 0.5	▲ 4.7
	금수저	MBC	▲ 0.9	▲ 0.6
	소방서 옆 경찰서	SBS	▲ 7.6	-
	디 엠파이어: 법의제국	JTBC	▲ 1.2	▲ 1.6
월화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	tvN	▼ 0.6	▼ 0.7
	치얼업	SBS	-	▼ 0.1
	커튼콜	KBS2	▼ 0.4	▼ 1.6
수목	얼어죽을 연애 따위	ENA	▲ 0.1	▲ 0.6
	일당백집사	MBC	▲ 1.5	▲ 0.1

드라마 시청률 현황. 1회 vs. 주간(11/11~11/17) 시청률



자료: AGB Nielso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방영예정 드라마

그림 5 디즈니+ 〈카지노〉 22.11월



그림 6 ENA 〈사장님을 잠금해제〉 12/07



그림 7 MBC 〈금혼령〉 12/09



그림 8 tvN 〈환혼: 빛과 그림자〉 12/10



자료: 네이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 개봉 예정 영화

그림 9 〈올빼미〉 11/23



그림 10 〈압꾸정〉 11/30



그림 11 〈탄생〉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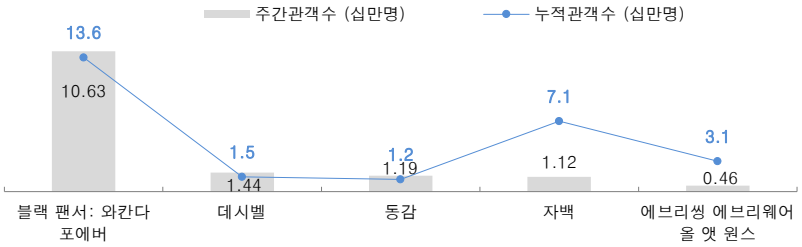
그림 12 〈영웅〉 22.12



자료: 네이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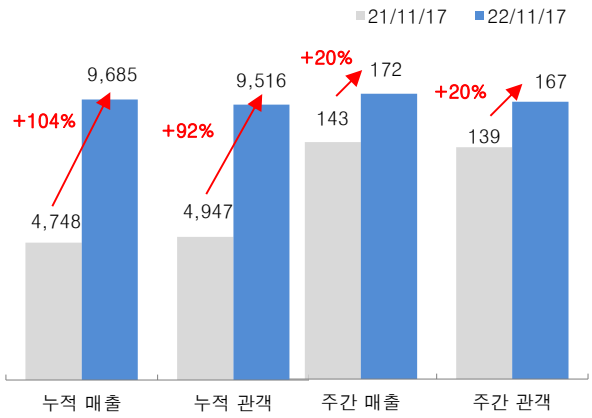
6. 주간 박스오피스 현황

영화명	배급사	주간(11/03~11/10)흥행 영화 관객수	주간 매출	누적 매출
블랙 팬서	디즈니		113	144
데시벨	마인드마크		14	14
동감	CGV		11	12
자백	롯데		11	71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워터홀		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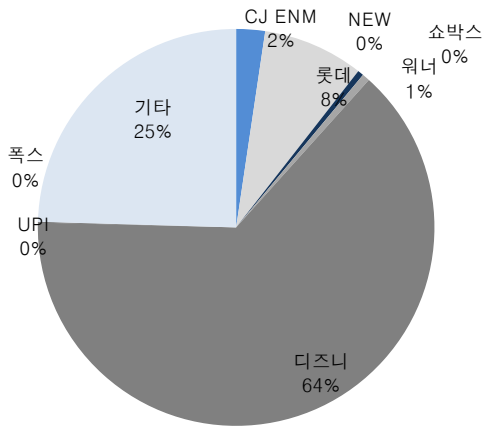
자료: KOF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3 주간 영화 관객수(만명) 및 매출액(억원). 12워 짧은 성수기 진입



자료: KOF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4 국내 영화시장 배급사별 주간 M/S



자료: KOF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 주간 코멘트

티빙 국내 1위, Sky TV, OTT 세액 공제		
티빙 국내 1위	티빙 MAU 431만명, 국내 OTT 중 1위	기업
	1. 11/16 모바일인덱스, 티빙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지난 9월 418만명으로 국내 OTT 사업자 1위를 처음 달성, 10월에도 431만명 기록하면서 두달 연속 1위. 전체 OTT 사업자 중에선 넷플릭스에 이은 2위 2. 10월 기준 시즌의 MAU가 125만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플랫폼 통합 후 MAU는 500만도 넘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 3. 〈환승연애〉, 〈청춘MT〉, 〈임영웅 콘서트〉 등 예능 위주의 프로그램에 이어 최근 〈몸값〉 등 오리지널 시리즈물도 흥행 4. 10/28 공개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몸값〉은 공개 첫주 기준 시청 이용자수(UV) 1위 달성, 전 회차가 공개된 2주차에 주간 유료가입 기여자수와 시청 UV 모두 1위 기록	CJ ENM
	■ 티빙은 ENM의 중요한 성장 동력. 기존의 tvN/OCN 위주의 컨텐츠 소비가 OTT로 바뀌는 과정에서 ENM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분야 ■ 20년에 확대 개편하면서 JTBC를 포함한 종편의 컨텐츠를 포함했고, 오는 12월 KT의 시즌까지 통합 ■ 연말 기준 400만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 확보 및 23년 800만명 도달 가능성. 400만명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부분적으로 BEP도 가능	긍정적
Sky TV	스카이TV 2023년 스타 크리에이터와 ENA 예능 · 드라마 제작 확대	기업
	1. MBC 출신 김태호 PD가 설립한 제작사 TEO 신규 콘텐츠 〈던져서 세계 속으로, 부루마불 세계여행〉을 내년 상반기 ENA 채널에서 공개 2. ENA PD 역량을 보여줄 오리지널 콘텐츠도 준비 3. 드라마 〈신병〉 IP를 활용한 스핀오프 예능, K-게임 프로젝트 〈아이엠 그라운드〉, 방송인 하하 가족과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하하 버스〉 등이 내년 순차 공개될 예정 4. KT스튜디오지니와 드라마 라인업도 강화. 월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12/7 첫 방송되는 수목 〈사장님을 잠금해제〉 등 5. "ENA는 톱 크리에이터, KT스튜디오지니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쓰며 시청자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도록 노력할 것. 올해는 초석을 다지는 해였다면 내년은 성과로 이어져 광고 매출과 ENA 브랜드를 확장하는 해가 될 것"	스카이라이프
	■ Sky TV는 KT의 미디어지니와 합병하면서 KT그룹의 컨텐츠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 부여 ■ KT 그룹의 1.3천만명 유료방송 가입자는 1번 채널에서 ENA 시청 가능 ■ Sky TV는 예능 투자/공급 및 드라마 공급에 더해서, 드라마 투자에도 일정부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긍정적
OTT 세액 공제	OTT 세액 공제 추진	산업
	1. 11/18 과기부,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 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발표 2. 정부가 국내 OTT를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고자 제작비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 3. 현재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 세액을 공제 4. 국내 OTT 홍보를 위해 부산국제영화제 등 인지도 높은 국제행사에서 가칭 '글로벌 OTT 어워즈'를 여는 방안도 추진 5. 과기정통부 관계자 "국내 OTT 산업이 발전하려면 내수보다는 해외 진출이 관건이다. 세계적 구매 패턴을 분석하면 이용자가 OTT를 2~4개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우리나라가 콘텐츠 경쟁력이 있다면 해볼만하지 않겠느냐" 6. 정부는 또 국내 OTT의 글로벌 진출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6,558억원인 디지털 미디어 · 콘텐츠 관련 펀드 운용 규모도 확대하기로 결정	컨텐츠
	■ OTT 세액 공제 등 정책적으로 국내 OTT를 키우기 위한 제도 마련은 긍정적 ■ 한국 컨텐츠의 질은 우수하나, OTT의 등장이 늦어지면서 국내 OTT는 글로벌 OTT 대비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으나, 최근 OTT간 통합이 나타나고 있고, 컨텐츠의 투자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 지원까지 수반된다면 한국에 진출한 글로벌 OTT 보다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	긍정적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회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